

시군 현장 답사기 *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 연구원

금산군 · 서천군

1. 시군 현장방문에 참여하며

지난 1998년 10월 30일 논산시로부터 시작된 시·군 현장방문은 1999년 3월 30일 천안시를 끝으로 그 일정을 마쳤다. 도지사를 비롯한 충청남도 각 실·국의 실·국장과 부서별 담당자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도와 시·군정의 연계와 통합성을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과시간에 관계없이 수많은 현장을 방문하였다. 시·군의 각종 행사에서부터 크고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과 시·군의 숙원사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시·군 살림살이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현장방문이었다.

우리는 시·군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시·군 지역의 정책과 개발방향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도와 시·군간에 좀더 연계되고 통합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 본 글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였던 시·군 순회 현장답사 행사중 금산군과 서천군에 참여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의견을 참여한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간에 노력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군 현장방문 행사에는 충남발전연구원원의 연구진도 참여를 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원은 시·군 지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연구원을 알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군의 교류방문과 지역답사가 필요하였는데, 도의 행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구원에서는 이중적으로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본원의 硏究員에게 발언기회가 부여되어 의견제시를 통한 충남발전연구원원의 역할을 시·군에 알리며, 정책제언과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론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고, 그 당시 제기되었던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그 동안 시·군 현장방문 행사에 참여했던 금산군과 서천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지역개발 방향과 방문현장 지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2. 시·군의 현장방문 현황 : 금산군·서천군

시·군 현장으로 방문했던 금산군과 서천군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사회기반시설과 산업단지 개발, 관광산업을 중점으로 지역의 온 힘을 결집하여 지역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현장의 방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금산군

- 일 자 : 1998년 11월 14일(토) 07:50~17:30
- 방문지 : 추부~대전간 도로 확 포장, 신대하수종말처리장, 인삼시장 우회도로 개설, 인삼종합전시관, 공공근로사업장, 복수농공단지, 인삼명인주공장, 금성보건진료소 등

2) 서천군

- 일 자 : 1999년 2월 10일(수) 06:50~19:10
- 방문지 : 한산모시관, 한산소곡주 제조공장, 웅기박물관 건립 소관품 보관 현장, 복원교 개량, 서천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춘장대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마량리 해돋이 마을, 송석항 개발, 서천기능대학 설립 예정지, 장항 국가산업 단지 조성지, 장항항 접안시설 보강, 장항 농공단지, 금강호 철새공원 등

3. 시·군의 지역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금산군과 서천군에 대하여 그 동안 깊이 있는 연구의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군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현황과 개발과제 및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을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금산군과 서천군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지역개발의 정책방향과 방문현장 지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산군

- 금산은 '21세기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시점임.
- 대전의 도시기능 확대로 대전생활권화의 가속화 예상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급격한 지역변화 전망
- 따라서 대전시의 광역도시기능을 수용하고, 기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 장기적 지역개발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21세기를 향한 금산의 4가지 지역개발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지역특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추진해야함

① 금강상류지역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한 활용방안 모색

- ※ 금강상류 지역의 山과 水에 대한 이용계획 필요

② 대도시 위성도시기능의 준비 → 대전의

Push 현상을

수용

- ※ 마전도시계획 재정비 등과



주거, 상업, 공업기능의 수용 준비

③ 도시 근교농업기능의 발전방향 모색 필요 : 지역주민사업으로 지원방안 모색

- ※ 추부갯잎, 땅두릅, 각종 채소류 등 대전에 공동 출하하고 수급 조절

④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지역특화전략 필요 → 2가지 방향의 전략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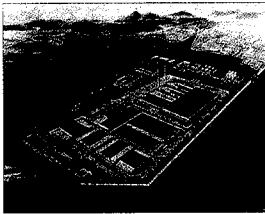
- ※ 최고급화 : 사포닌 성분의 약효를 고밀도 농축 판매, 고단가 상품 개발
- ※ 대중화 : 대중과 신세대 입맛에 맞는 음식, 음료 개발, 가격의 대중화
- ※ 인삼상품의 세제완화로 인삼가공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현장방문지역에 대한 의견

- 대전-추부간 도로 : 인터체인지 주변 대책 필요(마전도시재정비)
- 인삼시장 우회도로 : 절개지 부분의 환경회복을 위한 조경 필요
- 인삼종합전시관 : 금산 5일장을 '미니 금산 인삼제 개최'로 관광 상품화
- 푸른숲가꾸기사업 : 산림정비지역에 '금산 이미지 수종 群植'
- 복수농공단지 : 주변지역에 난립한 환경유해공장의 집단화로 환경오염예방

2) 서천군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서천군은 흙속에 꿰어야할 구슬이



많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

• 장군공업단지에

관한 의견은 이미 수

없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과 맞 물려서 풀어가야 할 앞으로의 과제로서 온 군민과 도민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임.

• 서천군은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기 위한 3가지의 조화있는 개발이 필요함

① 장군산업단지 및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

→ 지역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경제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

②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육성

→ 환경 파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서천의 생명'으로 아낌

→ 지역경제력을 키우고, 이를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

→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를 이용한 생태관광지 조성

→ 해안의 갯벌을 이용한 체험관광상품의 개발

③ 기존 농업과 어업을 지역기반산업으로 한 지속가능한 그린관광의 개발 육성

→ 고품질 지역농수특산물과 지역특색의 공예품과 전통음식을 개발

→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유통방법의 개선

• 현장방문지역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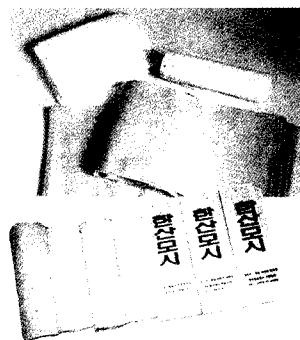
- 춘장대해수욕장 조성 : 상업시설의 위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 녹지보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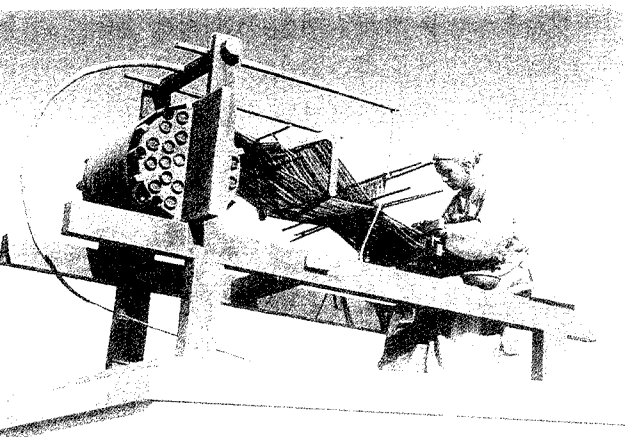
※ 대천해수욕장에서도 보듯이 모래사장과 바로 연결된 상업시설의 설치는 춘장대해수욕장의 생명력을 잃게 됨

- 마량 해돋이마을, 송석항 어촌휴양단지 개발은 물리적 시설공간의 개발보다는 지역의 지형지물과 지역주민에 의한 참여가 필요함

※ 마을 공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 마을을 상가와 민박으로 지역주민회가 개발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나 지원 필요

- 서천의 CIP와 한산세모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창출 도모





※ 군계나 중요지점에 서천 CIP나 상징물을
설치하여 지역 이미지화와 소개

4. 시·군 현장방문의 시사점

도와 시·군정이 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추진된 시·군 현장방문은 그 취지에 맞게 비교적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기존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와 통합이 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며, 이번 한번의 행사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연계와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를 낼 수 있듯이 도와 시·군에서도 상호간의 연계와 통합을 위하여 노력을 할 때 각각의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을 위

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와 시·군간의 정책적인 연계와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고위직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간에도 실무 차원의 상호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도와 시·군의 현장방문에 참여한 충남발전연구원원들은 해당 지역의 자료수집과 그 지역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적교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짧은 일정의 행사에 참여하여 시·군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방문 시·군 지역에 대한 자료를 미리 조사 연구하여 좀더 깊이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